

# 몰아내자

## 심장병

### 제7화

심장을 움직이는 것은...



부정맥·협심증·  
심근경색...등등, 심장병의  
종류도 많지만 어떤 병이  
어떤 것인지 병명만으로는  
알기가 어렵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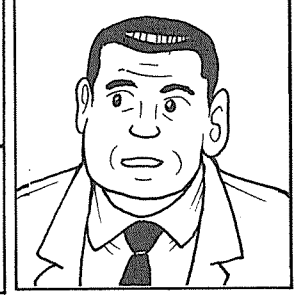
수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40세를 넘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장의 어딘가가  
나빠진다고 말하지요.  
어느날 갑자기 심근경색  
발작이 일어난 다고



해도 수상쩍은  
일이 아닌거죠.

저 권민!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심장 자체의 활동이  
나빠지는 심장병 즉  
허혈성 심질환입니다.  
협심증과 심근경색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요즘 허혈성 심질환이  
점차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40세 이상의  
돌연사의 원인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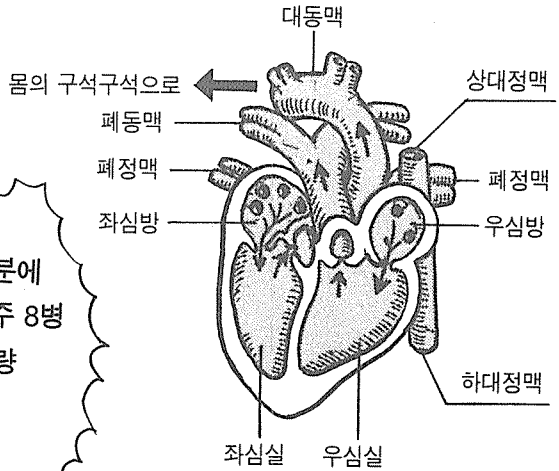
심장은 몸 속의 혈액을 순환시키는 펌프의 역할을 합니다.

에에!

심장은 엄청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분에 맥주 큰병 8병 정도의 혈액(약5ℓ)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1분에  
맥주 8병  
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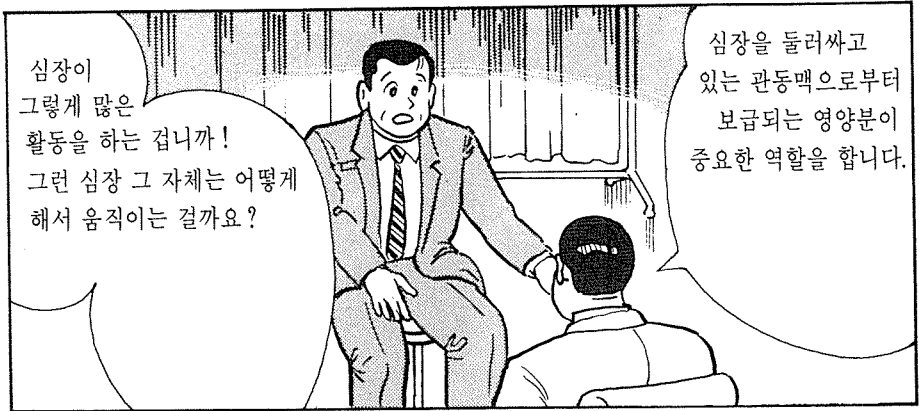
**심장의 단면도**



잠자고 있을 때도

8병 X 60분  
X 24시간 =  
11,520병  
이런 일은  
하루에……

에엇?!  
일만번 이상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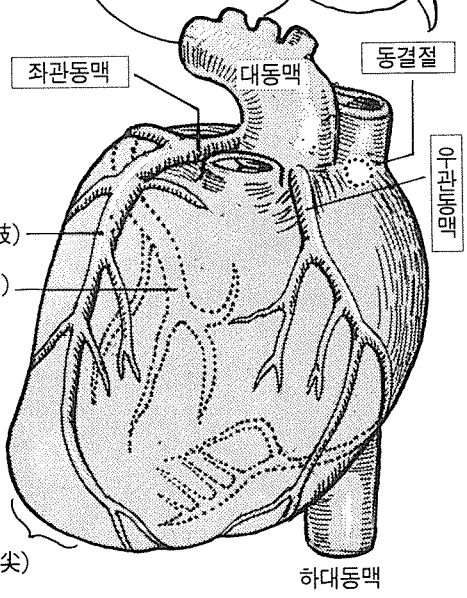


심장이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하는 겁니까!  
그런 심장 그 자체는 어떻게  
해서 움직이는 걸까요?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관동맥으로부터  
보급되는 영양분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관동맥은 대동맥을  
근원으로 해서 나와있는  
동맥이지요. 곧바로 커다랗게  
좌우 2줄로 갈라져서  
심장을 관(冠)과 같이 둘러싸고  
심장의 표면을 둘둘  
감고 있습니다.  
심장은 이 관동맥이라는  
특별한 혈관으로부터 산소나  
영양을 받아가지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심장의 고동을 박동이라고 하는데,  
이 박동의 리듬을 만들고 있는 것이  
동결절(洞結節)이고 여기서  
일어나는 자극이 주위의 근육에  
전달되어 심장의 수축·확장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본 심장

**심장의 매카니즘**  
관동맥과 동결절